



# 雲門

불기 2566년  
겨울호  
통권 제162호  
雲門寺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따뜻함이 그리운 겨울, 운문사 온 도량이 부처님 법으로 감싸여져 마음 난로 품고 있네 / 혜명 사미니과
- ※ 겨울이 봄 기운을 품고 있으니 계절마저도 무유정법일세 / 선재 사미니과
- ※ 손이 시럽고 발이 시려운 겨울, 함께하는 도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다 / 공림 사미니과
- ※ 마음에 그리는 모든 것들이 흰눈과 같이 부드럽고 가볍게...!! / 경운 사집과
- ※ 보드득 보드득 새하얀 눈 밟듯 늘 설레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 만나 이 겨울도 행복합니다. / 선혜 사집과
- ※ 딱 영혼을 깨우는 죽비 소리, 푹푹 푹 푹 화합을 부르는 목탁 소리. / 천진 사교과
- ※ 신심만 퇴굴치 않는다면 어느 누가 성불하지 못하리오 / 영원 사교과
- ※ 차가운 겨울 칼같은 비바람에도 웃을 벗은 나무들처럼 우리의 수행도 깊어지길 / 보현 대교과
- ※ 강원에 입학하던 날 '깁'자 세 개를 잘 새기라고 하신 노스님 말씀 기억하며 운문사를 가슴에 품고 나 이제 졸업한다^^ / 성안 대교과
- ※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 효민 대교과
- ※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 원경 대교과

# 雲門

##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雲門寺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small>명성</small>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어느 강독인가 <small>원모</small>
08	교수논단	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的 정착과 의의 <small>3</small> <small>일진</small>
13	행	지등명 법등명 <small>삼우</small>
14	특별기고	한자漢字와 한문漢文, 별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small>문광</small>
18	학인논단	기원정사와 라자카라마(Rajakarama) 그리고 운문사 <small>1</small> <small>서복</small>
22	수행의 두레박 하나	치문의 전도몽상 <small>선재</small>
24	자유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small>혜진</small>
26	운문, 운문인	함께라서 따뜻한 겨울 <small>관림부</small>
28	외부기고	심계화택의 지구를 구하는 불자들의 실천 <small>유정권</small>
32	수행의 두레박 둘	향 산 중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 산 중이는 비린내가 난다 <small>원진</small>
34	운문인행	부처님 닮아 가는 길 <small>무궁</small>
38	화랑동산	역사문화관 기공식 <small>범인</small>
40	수행의 두레박 셋	회광반조回光返照 <small>수정</small>
42	차례법문	공, 공, 공 <small>마노</small>
45	풍경소리	세한삼우歲寒三友 <small>마노, 원경하</small>
46	이 한 권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small>태갑</small>
48	운문논평	지구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 <small>관림부</small>
50	운문소식	
51	증물	조왕불공

## 雲門寺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명성 / 운문사 최주



가을철의 「시대가 변해도 진리眞理는 변함없다」에서 '승가공동체를 위한 화합和合과 일품 가지 쇠되지 않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출가자들이 자주 만나 법을 논하며 계율을 지키면서 화합하고, 장로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우리들에게 예불과 포살, 자자, 발우, 율력, 간경, 지계, 좌선, 삼매, 염불 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의 수행들입니다. 승가공동체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각자 실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매 순간 세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율장에 근거하면 안거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은 포살布薩과 자자自恣입니다. 포살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자인 계본戒本을 외우고 그 기간 안에 범한 이가 있으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대지도론大智度論』 13권에서는 포살에 관하여 “정성스러운 마음誠心으로 참회하여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계율을 잘 수지하는 것을 포살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회를 통해 자기 마음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회는 대사나(desana)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대중 스님들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때에는 서로 간에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① 때에 맞추어 알맞게 말할 것 ② 진실성을 지닐 것 ③ 부드럽게 말할 것 ④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말할 것 ⑤ 자비심을 가지고 말할 것 등이 본인과 대상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자는 부처님 당시부터 3개월, 여름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동안 함께 한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안거 중에 있었던 행위를 반성하는 것으로, 범납 차례대로 대중 앞에 나와서 “벗들이여, 승가의 안거 중에 저에 관하여 본 것(聞)과 들은 것(聞)과 의심나는 것(疑)이 있다면 마음대로 물어주십시오. 존자님들께서는 동정심을 배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게 되면 참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구마라집은 물을 ‘자초’를 써서 ‘자자自恣’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대중이 함께 살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로써 심성心性의 때를 제거하여 수행자 개개인의 근본적인 발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때 묻는 자는 공격과 비난이 아닌 애정과 관심과 자비심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마치고 나면 청정해진 스님들의 도량과 덕德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져서, 이러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사람들은 큰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미래지향적인 승가대학의 발전을 위한 학인 간담회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헌문불전 교육의 장점 극대화와 계율공부의 병행 및 좌선실수坐禪實修를 정규화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운문사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행복한 강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체적 자율적으로 개혁해가며 명실상부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문사 사중과 교수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이 더 많이 소통하기를 진심당부 드립니다. 卍

## 어느 강독인가

원모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문을 두드린 지 거의 3년이 되어 간다. 처음 뉴스를 접할 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먼 주민이 이천 명 남짓인 운문사에, 바이러스가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나 했다. 그러나 곧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나붙고, '수행공간입니다', '발길을 돌려주세요' 등 사정하듯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빗장이 걸렸다. 출가와 재가는 하나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이 무색하게 서로가 감옥에 들어앉은 모양새가 되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라는 공권력의 강력한 주문사항이 떨어졌다. 캄박캄박하는 건방증을 자책하며 수시로 얼굴을 돌리고 마스크를 찾는다. 혹시라도 무증상자가 흘러고 갔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각자의 이모티콘이 허공에 떠돈다. 아, 답답해! 물래 숨 한번 휴우- 토하는 순간 어림 없다는 듯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태세로 격상한다는 문자가 전송된다. 무서워라. 내일이 내생이 되겠네. 운문사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했고, 사시불공도 새벽으로 이사했다. 놀라운 일이다. 경전 말씀에는 유정 무정이 동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무엇일까, 의심스럽다. 그러다 문득 '이긴가 상현실이야, 곧 깨어날 거야' 하며 위안을 삼아본다.

코로나 방어벽으로 꽉 막혔던 도량에 초가을의 소슬한 바람이 일며 여기저기 노란 국화꽃 화분이 놓이기 시작한다. 국화 향기가 도량을 메운다. 아, 다시 돌아왔구나!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운문사 총동문회날이다. 아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기상조라는 우려 속에서도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바리케이드가 한쪽으로 치워지고 해탈문, 불이문, 철문들이 활짝 열렸다.

청명한 아침부터 동문스님들이 하나 들쭉 마당에 서성이기 시작하고 간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돌개바람이 물고 온 듯 스님들이 모여들어 삼삼오오 은행나무 아래서 즐겁게 대화한다. 아랫마을까지 내려가서 해야 했던 모심기, 보리타작, 콩타작, 바다같이 넓던 벼추말 가꾸기, 도토리 줍기 등 농경시대(2)를 살아내느라 심신이 고단했던 시절의 이야기들. 또 봄소풍에서 벌여졌던 즐거운 오락놀이, 지신도 놀라게 한 가을 운동회 등 어찌 그리 세세히 기억해내는지, 지나간 시간의 삼매에 빠져 운집목

탁을 치면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나올 것만 같다.

올해는 26기생들이 새로운 동문회장단 소임을 맡았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동문회가 시작되고 동문회장은 격을 벗어난 듯 아닌 듯, 희의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우리 26회는 일 잘하는 소미들이 13명이나 있는 반입니다. 동문 스님들이 주문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건토의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젊은 날의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까르르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과거와 현재가 만다라 밥상처럼 화합하여 일순간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만 같다.

잠깐의 동문회가 끝나자 왈차하던 동문스님들도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형형색색 터지던 폭죽의 불꽃들이 허공에 흩어져 버린 듯 허망하다. 싸한 냉기가 돈다. 나는 어디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일까? 어떤 세계에 갔다가 다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몽롱하다. 삼세로 이어지는 시간은 직선이고, 삼계(육계 책계 무색계)의 공간은 계단처럼 순차적이라는 중생의 고정관념을 떨치고 '법의 본성은 항상 적멸상을 갖추고 있다'는 범화경의 말을 되뇌어 본다. 그러자 갑자기 죽비 일성과 함께 무문관 제35칙 천녀이혼(仙女離魂)의 화두가 떠올랐다.

오조 범연五祖法演(1024~1104) 선사가 어느 승려에게 물었다.

“천녀는 혼이 나갔다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당나라 때 장감이라는 사람에게 천녀라는 딸이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맺어질 수 없자 그와 함께 도망가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았다. 5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혼이 나가 병상에 누워 있는 또 하나의 천녀가 있었다. 이때 집을 나갔던 그녀의 혼과 집에 있던 몸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화두공안이다. 물론 이 질문은 어느 쪽이 실재이고 가상인가 혹은 무엇이 흑이고 백인가를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별심에 뿌리를 두고, 갈팡질팡 허상을 잡아보려는 우리들의 미망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상대를 떠난 절대적 세계, 여여한 본분사(本分事)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교훈이다.

무문 스님은 말한다.

“만약 여기에서 진자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곧 몸에서 나가고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여관에서 하룻밤 묵는 것과 같음을 알 것이다.”

구름과 달 그 바탕은 다 똑같지만 雲月是同  
계곡과 산 그 모습은 저마다 달라 溪山各異  
이 모든 것 알고 보면 온갖 축복들 萬福萬福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말하지 말라 是一是二

이쪽과 저쪽, 진짜와 가짜, 유행과 무정, 가상과 현실 등 모든 것을 둘로 쪼개어 어느 한쪽 강둑에 발을 딛고 있을 중생들의 안목은 지금도 어느 즈음에 가 있을까? 諸

# 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 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의 정착과 의의 ③

임진 / 운문사승가대학 윤주

##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부승수계의 기원
  1. 비구니 수계의 기원
  2. 이부승수계의 전래
-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수계제도
  1. 이부승수계의 복원
  2. 조계종의 비구니수계 과정
- IV. 한국 비구니의 위상과 법계명성의 역할
- V. 맺음말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남방불교권에 여전히 비구니가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이 부승에 의한 비구니 구족계 수계제도가 복원됨으로써 명실공히 비구니 종주국이 되었다. 1993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한국 비구니들이 참석하여 비구니계를 전해주기도 하였으며, 1996년 인도에서 스리랑카의 '다사실 마따'<sup>35)</sup> 10명에게 한국 비구니들이 비구니계를 전해 주기도 하였다.<sup>36)</sup>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를 벗어버리고 청정승가를 이부기 위한 고승들의 노력과 자운율사의 원력으로 확립된 이부승수계제도는 율장에 준거한 완전한 수계의식으로 비구니 승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였다.<sup>37)</sup>

출가와 재가를 가르치는 유일한 경계인 계율을 수지하는 수계의식은 출가자 탄생시키는 가장 엄중하고 신성한 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수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계율의 준수와 자기 점검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조계종은 제도적으로 여법해진 수계의식에 걸맞는 여법한 계율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출가자의 신분을 얻는 수계의식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출가자들이 수행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율의식을 고취하고 자가 점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우려하는 작금의 조계종 상황에서 수계식이 잠깐의 통과 의례로 끝나고 마는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 IV. 한국 비구니의 위상과 법계명성의 역할

한국불교는 조선조의 승유역분의 고난 속에서



도 수계와 전법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노력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계맥의 전승이다. 1824년(순조24)에 대운낭오大隱朗許을 사는 하동 칠불암에서 7일간 기도 끝에 서상수계瑞祥受戒를 하였고, 이보다 약 50년 후인 1892년(광서 18) 대구 용연사의 만하승림萬下勝林율사가 계법 중흥을 위해 중국으로 가서 법원사 관단官壇에서 창도한파昌灑漢波율사로부터 수계하고 귀국하여 1897년 양산 통도사에서 수계법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한국 불교의 양대 계맥인 대은파와 만하파가 병존하게 되었다.<sup>35)</sup>

단일계단의 정비와 이부승수계를 제도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자운율사는 통도사와 범어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만하파의 계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자운율사는 비구뿐만 아니라 비구니에게도 계율을 교육하고 전계하였으며, 이러한 비구니 계맥이 이어지고 있다. 자운율사에게 계맥을 전수받은 비구니는 보원정행, 원허인홍, 법계명성, 세주묘엄이다.<sup>36)</sup>

비구니 율사 양성과 더불어 비구니 계맥을 전승하는 일도 이부승수계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1999년 개원한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봉녕사 금강율원의

율주였던 묘엄 스님은 2007년 제1회 전계식을 통해 적연·신해 스님에게 전계하였으며, 이후로도 전계식을 통해 총 6명의 비구니 율사를 배출하였다. 비구니가 직접 전계를 하여 비구니 율사를 배출함으로써 비구니 율맥의 독립적 계승을 공식화한 셈이다.<sup>37)</sup>

여기서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었으며 역대 전계니화상과 아사리직을 지낸, 법계 명성 스님의 비구니 율사 양성과 한국 비구니 위상 정립에 기여한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구니 율사로서 계율 교육의 선구자는 묘엄 스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된 바도 많지만,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은 비구니 율사의 또 한 분이었던 명성 스님에 대한 조명은 거의 없었다.

명성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율사를 제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1982년 첫 비구니 범소계단의 삼사직인 교수아사리를 맡아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였다. 당시 율전 강사로서 일타 스님이 『사분계본』을 강의하였고, 지관 스님이 『사미율의』를 그리고 명성 스님이 『사미니율의』를 강의하였다. 명성 스님은 『사미니율의』를 편찬하여 책을 발간한 바 있고, 이는 행자

35) 스리랑카의 여성 출가자를 이르는 말로 '열 가지 계율을 지키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36) 그러나 스리랑카 비구 승단은 이 때의 수계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성 스님은 율장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비구니들이 상좌부 비구니승가 복구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성, 『상좌불교의 비구니승가 복구문제』, 『한국불교학』 제50집, 2008)

37) 이부승수계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나누는데, 율장에 따른 계율 정비와 여법한 수계 의식으로서 비구니 승단의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은 팔경계와 관련되어 제정된 이부승수계가 비구니 차별법의 하나라는 시각이다.

38) 가산지권, 『한국불교계율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39) 가산지권, 앞의 책

40) 하운생, 『수행 전법 실천 분아서 큰 발자취』, 『현대불교』, 2015.11.7.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명성 스님은 '오늘날 강당에서 수학하는 교과목 가운데 삼장 중 계율이 도의시 되어 소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사미·사미니들이 십계문十戒門의 명목名目마저 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후학인 모든 불자들은 이 책에서 계율문과 위의를 잘 배워서 실천공행함으로써만이 문란하여진 승풍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sup>41)</sup> 라고 계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미니율의를 승가교육 교과목에 편제 하여 가르치고 있다.

명성 스님은 그 이후로도 비구니 별소계단에서 갈마아사리와 교수아사리를 역임하였으며, 2001년 대한불교조계종 구족계 별소계단의 전계사로 위촉되어 2003년까지 비구니 전계화상으로 구족계를 설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명성 스님은 비구니 교단이 없는 남방불교 국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비구니계 수계와 비구니 교단의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비구니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2006년 전국비구니회 회장 시절, 명성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인 베삭데이(Vesak day) 기간 중에 태국 종정을 만

나 태국 비구니(매치) 10명에게 대승불교의 비구니계를 수계토록 해 달라고 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부승수계를 하기 위하여 비구 계사의 동행과 한국비구계단의 인준을 지관 스님에게 요청하였다.<sup>42)</sup>

이 자리에서 지관 총무원장은 "한국불교의 계맥을 태국에 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니 반드시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sup>43)</sup> 이 수계법회는 마하출라쿤친 대학 총장이 명성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 등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와 부처님 오신 날 축하사절로 공식 초청하여 성사되었다. 세계적으로 비구니계단이 존속하는 한국 불교계를 전 세계 여성불교의 종주국으로 여겨 전국 비구니회에서 수계법회를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2008년 9월 태국 마하출라쿤친 대학은 법계명성 스님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007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열린 '승가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에 참가한 명성 스님은 전세계 비구니를 대표하여 축하연설을 하였고,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서 달라이 라마 스님과의 공개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명성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 쪽이 없이는 날 수 없고 굴러갈 수 없다. 티벳 승단에 비구니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니, 하루 빨리 티벳에 비구니 승단을 세워 줄 것' 을 달라이 라마에게 요청하였

41) 진명성, 『사미니율의』 『解行入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9.

42) 『법보신문』, 2006년 5월 2일자

43) 『현대불교』, 2006년 5월 2일자

다. 물론 사라진 비구니 승단을 복구하는 일은 한국 비구니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명성 스님의 요청을 티벳 비구승단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티벳에서 비구니 구족계 수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불교국가들 앞에서 사라진 비구니 승단의 복구를 정당하게 요구한 것은 비구니 종주국으로서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비구니수계의 적법성과 자주성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자운율사로부터 계맥을 이은 명성 스님은 2008년 원해홍륜 스님(1943~2015)과 원명진광 스님에게 전계하고 운문사에 보현을원을 개설하였다. 보현을원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11명의 율사를 배출하였으며, 명성 스님은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강의를 하며 일상의 삶 자체가 지율자持律者로서의 본모기를 보이고 있다. 한번 사라진 비구니 계단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분명히 목격하는 상황에서, 비구니 율사 양성과 율맥의 전승은 비구니승단의 존폐가 걸린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명성 스님을 비롯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의 공로 덕분에 현재 한국 비구니는 여법한 수계식에 의하여 세계 여성불교에서 뚜렷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에 참석한 여성불자들 속에서 한국 비구니는 비구니 구족계 포살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극소수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티벳과 여러 남방불교국가의 여성 출가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수행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들은 비구니 구족계 수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비구니들의 출가수행 환경을 부러워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한 통과례로 여겨지는 비구니 수계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세계 속에서 한국비구니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율 의식이 부족한 한국불교를 돌아보며, 출가자의 위와 신분을 결정짓는 계율의 중요성을 자각할 때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적법한 수계의식을 정비하여 여법한 출가수행승을 키워내고자 했던 앞선 여러 고승들의 원력에 대한 보은일 것이다.

그리고 어렵게 정착된 수계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율 교육과 비구니율사 양성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이며, 비구니 율맥의 전승 또한 지속시켜야 할 전통임에 틀림이 없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부승수계의 기원과 복원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고승들의 많은 노력과 공로가 있었음을 상기하였다.

부처님 당시 세 번의 간곡한 요청으로 허락된 비구니의 출가는 비구승단이 만들어지고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비구와 달리 비구니는, 비구니 삼사칠중사로 구성된 별소계단의 수계의식 후 비구 삼사칠중과 함께하는 본소계단의 수계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이부승수계라고 한다.

이부승수계에 관한 조항은 비구니 율경법과 현재 조계종이 따르는 사본율을 비롯한 각 율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부승수계가 한국에 언제 전래되어 시행되었는지 역사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삼국시대부터 비구니가 존재해 온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송유억불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된 계맥을 이으려는 노력으로 대은낭오파와 만하승림파인 양대 계맥이 형성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만하파의 계맥을 이은 율사가 자운 스님이다. 자운율사는 1982년 이부승수계 복원을 위해 조계종 중앙총회에 건의하여 종법을 개정시키고 이부승수계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2년 진관사에서 비구니를 위한 계율특강을 실시하여 비구니 삼사철증이 선발되었고, 드디어 역사적인 이부승수계에 의한 첫 비구니 수계식이 범어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구니에 의한 비구니 수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비구니율사의 양성이다. 1999년부터 6년 동안 비구니 348계를 비구율사가 수계자들에게 강의하겠다는 교수아사리직을 맡았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은 묘엄 스님은 1999년 최초의 비구니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하였고, 2007년에는 청암사에 율원이 개원되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2008년 명성 스님이 운문사 보현율원을 개원함으로써 비구니 율사 배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은 비구니인 법계명성 스님은 이부승수계가 복원되던 1982년 첫 수계식에서 별소계단의 교수아사리를 맡았으며, 율전강사로 사미니율의를 강의하였다. 이후로 별소계단의 삼사직을 비롯한 전계화상을 역임하였으며, 비구니교단이 없는 불교국가에 비구니 교단을 복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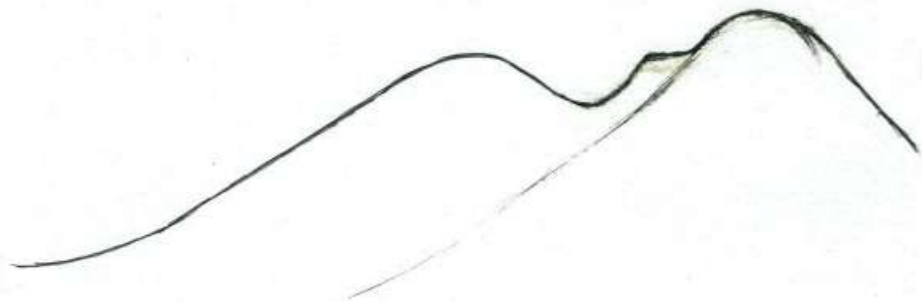
세계적인 불교행사에 참석하여 비구니가 없는 불교국가에 비구니교단의 복원을 역설하였으며 실질적인 수계의식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는 역부족이었으

나,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비구니수계의 적법성과 자주성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켜온 수계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며, 제도적으로 어렵해진 수계의식에 걸맞은 여법한 계율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수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계율의 준수와 자기 점검이다.

현재 조계종은 수계식이 일시적인 통과외로만 그치지 않도록 출가자들이 수행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율의식을 고취하고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고승들의 원력으로 정착된 비구니 수행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하여 승보 僮僕로서 출가수행자들을 위한 계율의 강화와 비구니 율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자 등 명  
법 등 명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 열반경中 -



삼우 / 시마노

## 한자漢字와 한문漢文, 뻘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광 /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 한문보다 영어가 편한 시대

불교 경전을 가르치다 보면 한문본 말고 영어본 없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한문 교육보다 영어교육에 치중해 온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자와 한문은 고리타분한 옛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고, 초, 중, 고등 교육에서 한문 교육은 필수에서 제외되었으며, 대학 입시에서 한문시험은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유치원이 인기를 끌면서 대세를 차지하고 초등학교부터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더니 외국 연수와 유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월을 수십 년 보내왔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자면 현대 한국은 '영어 아비투스(Habitus) 사회'인 셈이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것을 우대하고 영어



BTN 불교TV에서 진행한 「선문명승」 강의 중

가 필수인 시대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 지금이야말로 한자와 한문 교육이 필요한 때

조계종단에서도 강원講院이 승가대학으로 변모하고 한문본 전통교재들이 한글번역본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몰극필반物極必反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극으로 치달릴 때 반대 측면을 보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탄허 스님은 한글전용이 선언되던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한문을 열심히 공부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문 불전 전문가가 극도로 줄어들 것을 예견하시고 오히려 인재 양성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 문하에서 대강백이 되신 각성 스님, 통광 스님, 부비 스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문 불전 전문가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출현했던 것이다. 전통 강맥을 유지해 주신 앞 시대의 대강백 스님들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한문본 경전을 이렇듯 계속 읽을 수 있는 힘을 이어받았고 그 명맥이 그나마 유지되어 온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강백 스님들이 대를 이어 배출 되어서 전통 한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북방불교의 핵심 종지를 한문 불전을 통해 강론해 주었고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초서草書로 된 문헌을 탈 초脫草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스님들은 60대 밑으로는 드물게 존재하고, 구두점이나 주석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백문白文을 술술 읽을 수 있는 학인 또한 심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리다 보면 수천 년 이어진 한문 문헌에 대한 독해의 전통이 앞으로 승가에서마저 미미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향후 승가 교육은 이원화될 필요가 있겠다. 기본교육은 한글본이나 번역본으로 하되 종지를 확실히 하여 불교의 핵심교리를 빨리 습득하게 하고, 한문 전문가들은 별도로 길러내어 전문 강사와 연구자의 맥이 이어지도록 두 트랙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틀림없이 한문 문헌에 밝은 지성들이 그 최소성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자와 한문의 세계는 긴 시간 동안의 공력이 축적되어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으므로 쉽게 전문가를 양산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문 원전 독해 능력은 '한국학'의 기반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소양이다. 탄허 스님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할 길을 모색한 '탄허학 연구,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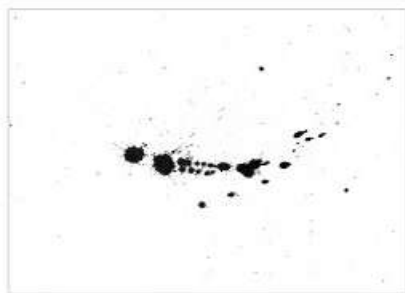
#### 심각했던 한자 교육의 실태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한자는 너무 어렵고, 한문은 그 자체가 난해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 입시공부를 하면서 영어 사전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던가 떠올려 보자. 대학 입시를 겪은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 년 동안 찾고 찾아 닳은 영한사전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도 토익과 토플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카(Voca)'라는 영어단어공부 텍스트 하나씩은 샀던 기억이 있다.

과연 우리가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하면서 '사전詞典'이나 '사전辭典'을 얼마나 찾아보았는지



白頭大幹 世界丹田(백두대간 세계단천)



壽山福海(수산복해)

반추해보자. 한자漢字 한 글자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몇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천天'의 경우 우리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공부했던 천자문千字文의 훈과 음인 '하늘 천' 외에 몇 가지 알고 있는 뜻이 없다. '천天'이라는 글자들 옥편이나 사전, 중국어 사전 등에서 별도로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천천天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늘 천이 왜 두 번이나 나와?" 이라고 말 뿐 바로 사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천天'에는 '하늘'이라는 말 외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 '하루'라는 뜻도 있어서 '천천天天'은 '매일'이고, '명천明天'은 '내일'이란 뜻이다. 현대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사전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한자 자전은 굳이 찾으려 들지 않는다. 그러고도 한자와 한문이 어렵

다고 느꼈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말이다. 영어 단어의 경우 하나의 의미만 알고 영어책을 독해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한자와 한문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해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자문千字文」교육의 폐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육의 시작이 천자문일 뿐이지 천자문이라는 책에 혐의를 덧댈 수는 없다. 지나간 공부를 위한 시작으로서의 소학小學의 첫 단계였던 천자문에서 한자 공부가 종식된 경우들이 부지기수이므로 우리네 한문 실력은 거기가 종착지가 되었던 것이다.

먼저 한자 1급을 따는 노력부터 시작하고, 상용한자부터 익히고, 사전을 부지런히 찾고, 기본



적인 한문 문헌들을 시작으로 하여 매력적인 한시漢詩의 세계에까지 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동양의 문사철文史哲은 한자적漢字的 감수성과 한학적漢學的 사유를 통과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유불선儒佛仙 3교의 직관과 통찰은 한자라는 독특한 언어학적 특성에서 추출된 것이다. 한문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북방불교의 교학과 제대로 조우할 수 있고, 최고의 논자들의 논정論藏에서 노닐 수 있으며, 선사禪師들의 선사禪詩의 세계를 음미할 수 있려면 한자와 한문의 재미에 한차례 빠져들어야 한다. '재미' 라는 말은 '자미滋味'에서 왔다고 한다. 이 '붙어나는 맛'을 즐기다 보면 한자의 매력 을 느끼게 된다.

#### 남북통일 뒤의 한국학을 준비해야

한국어는 한자어가 많다.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공부는 없다. 더해 가는 덧셈을 해야지, 안 해도 된다는 뺄셈의 논리는 온당치 않다. 한자를 모르고 한국어를 잘하기가 쉬운가? 한문을 모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운가 말이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통일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국학國學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텐데 한글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한적漢籍들이 쏟아져 나오지 알 수 없다.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오래된 기왓장들이 나올 것이고, 각종 명문銘文이 튀어나올 것이다. 어디신가 옛 문서들이 발견될 것이고 필사한 행초서 문헌들이 마구 등장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불교 유적지에서는 불교 관련 한문 문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서들 어렵지 않게 읽어낼 인재들을 우리는 양성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시대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시대가 있는데 한국인은 한국을 잘 알지 못한다. 원효가 썼던 한문 문장을 잘 읽지 못하는 시대가 더는 부끄럽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다.

#### '한자漢字'를 '한지韓字'라고 쓰면 안 되나?

'한의학'은 '한의학漢醫學'이라 쓰지 않고 '한의학韓醫學'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자'도 '한자漢字'라고 쓰지 않고 '한자韓字'라고 쓰면 어떨까? 같은 글자를 사용해도 한국은 중국, 일본과 발음이 다르다. 글자만 공유할 뿐 발음은 완전히 다르니 한국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한韓'을 쓴 '한자韓字'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고 정평이 난 KBS의 원로 아나운서인 이규향 선생이 나에게 던져준 고견이었다. 대단한 타격감인데 나만의 생각인가? 일년년의 마지막 달력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흡고 스산하다. 다소 외롭지만 그렇다고 고독하지는 않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한글



문광

해인사 원당암에서 각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해암 큰스님을 시 불했다.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신학과·불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중문학과 학사와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불암사와 해운정사에서 안거 정진했으며, 2013년 통광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2022년 경성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교묘아사리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에 재직중이다.

##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 (Rājakārāma) 그리고 운문사 ❶

서목 / 사교과

### 목 차

1. 비구니 승가 이루어지다
  - 1) 붓다의 어머니 고타미, 최초의 비구니 되다
  - 2) 고타미 주변인물과 출가결심
2.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
  - 1) 비구 승원 기원정사
  - 2) 『불국기』와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1) 법현의 『불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2)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3) 비구니 승원 라자까라마
3. 기원정사와 운문사 시설 및 생활 배대
4.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 1. 비구니 승가 이루어지다

1) 붓다의 어머니 고타미, 최초의 비구니 되다  
“오너라, 비구니여.”

2,500년 전 부처님께서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왕비<sup>1)</sup>에게 이렇게 말하였고 이것이 비구니 수계의 시작이 된다. 율장에는 세 가지 형태의 수계가 언급되어 있다.

첫째, ‘오너라, 비구니여!’ 라는 말끝에 머리가 깎여지고 가사가 입혀지며 이루어지고,

둘째, 삼귀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셋째, 이후 이부승 제도로 비구니 구족계 수계 산림 후 비구 승가의 승인 인준을 받는다.

#### 2) 고타미 주변 인물과 출가 결심

마하파자파티는 싯다르타의 이모인데, 생모인 마야부인이 돌아가시자 석가모니의 양어머니가 된다. 고타미는 싯다르타를 생후 7일째부터 정성껏 키우니 싯다르타의 아내 야수다라에게는 시어머니가 된다. 부처님 고향 카필라성에서 석가모니의 아버지이자, 고타미의 남편인 순도다나 왕이 서거한 뒤 고타미 왕비는 출가를 결심한다.

그때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석가족과 폴리아족이 서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로히니 강 물 사용권으로 다툼이 일어났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셨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500명의 석가족과 로히니족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다. 그러자 이 출가자들의 아내와 가족 500명도 남편을 따라 출가 결심을 굳히고 고타미 왕비에게 뜻을 전한다. 500명의 여인은 땀밭로 걸어서 부처님을 찾아가지만 출가 의사를 거절당하다가 세 번째,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계시 때 마침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야난다 비구<sup>2)</sup>의 도움으로 수계를 받게 된다. 수행 정진한 500명의 비구니는 ‘난다까의 교계 경(M146)’을 듣고 마지막 비구니까지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 2.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

### 1) 비구 승원 기원정사

코살라(Kosala)국의 수도 스라바스티에 위치한 기원정사<sup>3)</sup>는 제마 숲에서 동쪽<sup>4)</sup>을 향해 세워졌는데, 수닷타<sup>5)</sup> 장자가 파세나디 왕의 아들인 제마 태자와 같이 보시한 승원이다. 장자는 금전 18크로어(1크로어는 천만 루피)로 땅을 사고 36크로어로 건물을 지어 총 54크로어를 정사를 위해 공양 올릴 만큼 대부호였다. 사리불의 설계에 따라 대지 백만 평에 붉은 벽돌집들을 몇 달 안에 다 지었고 여덟 개의 우물을 파고, 부처님의 거처인 향실을 중심으로 앞에 대강당을 지었다. 대강당 좌·우 사리불, 목건련, 아난다 등이 각각 그들의 권속과 지내도록 대형 집 건물을 여섯 동이나 건축했다.

수닷타는 기원정사에 매일 죽을 보내고 오후에는 가사, 발우, 깔개, 의약품 등 필수품을 보냈다. 수많은 비구가 매일 장자의 집에서 공양 청을 받았다. 기원정사는 축립정사에 이어 두 번째로 생겨났으며, 부처님 공간, 수행공간, 생활공간 등이 잘 갖추어졌는데 60개의 커다란 홀과 60개의 작은 홀 및

방사, 설법전, 꾸띠, 포행처, 우물, 목욕시설 등이 있었다.

부처님 49안거 중 우안거 19차례를 이 곳에서 보내셨고 대비구 1,250명과 함께 결식하며 잠된 수행자의 면모를 숲 속에서 보이었다. 많은 설법 중 4처 16회로 설해진 600부 반야경 중 577권인 『금강반야바라밀경』도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것이며, 현재 한국에서 많이 독송되고 있다. 또한 부처님께 가르침을 많이 받은 파세나디 왕<sup>6)</sup>은 기원정사에 가장 큰 건물인 살랄라가라를 보시했는데, 살랄라가라는 수백명의 비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과 방사로 사용되었다.

또 대부호의 딸 재가녀 위사카는 기원정사 동쪽 가까이 미가라마무 강당<sup>7)</sup>을 보시한다. 이 곳은 각 층이 500개로, 총 1,000개의 방사를 갖춘 2층 건물이다. 위사카가 생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과 비구, 비구니 승가에 보시 할 8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허락받는데 항목은 비구, 비구니 승가에 비웃, 음식, 약, 죽, 병든 비구와 간호하는 비구에게 음식 보시, 비구니 승가에 목욕옷 보시 등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코살라국에서 많이 이루어졌

1) Mahapajapati Gotami 왕비는 정반왕과의 사이에 아들 난타를 낳았다. 결혼을 앞둔 아들 난타를 석가가 강제로 출가시켜도 볼 만을 보이지 않았다. 고타미는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에 찾아가 먼저 열반에 들 것을 승낙받고 바이살리에서 허공에 올라 신변을 나타내고는 열반에 들었다.

2) 아난다 비구는 부처님 성도 일에 태어났으므로 '경희(慶喜)'라고도 불린다. 석가모니의 사촌 동생으로서 20세에 출가했다. 부처님께서 55세 때 아난다를 시자로 선택하셨고 열반하시는 80세까지 25년간 정성 어린 시봉을 받으셨다. 고타미와 아수다라 등 비구니 출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수닷타 장자가 자신의 제마 숲에 황금을 까는 보시 태도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제마 태자는 보시에 동참하고, 숲 입구에 자신의 처소를 마련한다. 원명(原名)은 '제마 숲의 아나타핀디카 승원'인데, 한역으로 '기원정사(祇園精舍)'라고 부른다. 스라바스티는 사위성이라고 한역한다.

4) 부처님의 주치의 지바카가 보시한 승원에서 설법하실 때도 부처님께서는 동쪽을 향해 앉으셨다.

5) 수닷타 장자는 공경의 칭호로 '미나타핀디카'로도 불리는데, '무의탁자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라고 한역한다.

6) 말리 왕비의 설득으로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며, 부처님과 생일이 같은 동갑인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자신의 집'을 운영하여 음식과 마실 것을 항상 제공하였다. 한역으로 '바사익왕'이다.

7) 커다란 집회소와 부처님의 작은 처소도 있었다. 기원정사 동쪽 숲에 위치하여 '동원정사(東園精舍)'로도 불린다. 고급스러운 정식이 많이 하고 나무와 돌로 품위 있고 견고하게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목갈라나를 강당 짓는데 감독으로 임명하셨고 건축 기간은 9개월이 걸렸다.

수 있었던 까닭은 기원정사라는 훌륭한 승원이 있었고, 이 승원의 유지를 돕는 파세나디 왕, 수닷타장자, 재가니 위사카 등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보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 『불국기』와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1) 법현의 『불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중국 동진시대 비구 범현(334~420)은 율장을 구하기 위해 나이 60대에 인도로 유학한다. 귀국 후 많은 번역을 하며 인도 여행기 『불국기』에 기원정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성의 남문을 나와 1,200보 되는 서쪽에 기원정사가 있는데, 동쪽으로 문이 나있고 양쪽 행랑에는 두 개의 석주가 있다. 왼쪽 석주 위에는 범륜이, 오른쪽 석주에는 석가 종족 상징인 황소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 정사 내의 물줄기는 청정하고 나무들은 무성하고 꽃들은 만발하였다. 기원정사는 원래 7층으로 여러 나라의 국왕들과 백성들이 다투어 보시하고, 번개幡蓋(깃발)를 매달고, 꽃과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는 것을 하루도 그치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쥐가 등 심지를 갈아서 깃발에 불이 붙어 정사에 옮겨져서 7층 건물이 모두 타 버렸다. 법현이 인도에 간 400년경 기원정사 큰 동산에는 문이 두개가 있는데 한 문은 동쪽으로, 다른 문은 북쪽으로 향해 나 있으며, 정사는 동산의 중앙에 있다. 기원정사를 둘러싸고 98개의 승가람이 있는데 모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만 한 곳만 아무도 없었다.”

### (2)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중국 당나라 때 비구 현장(602~664)도 나란다 대학에서 유식을 공부한다. 그의 『대당서역기』에 묘사된 기원정사를 살펴보자.

“파세나디 왕의 어전이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한 건물터가 남아 있는데 위에 작은 탑이 세워져 있다. 옛날 파세나디 왕이 여래를 위하여 세운 대법당 터이다. 법당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은 건물터 위로 탑이 있다.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의 정사로서 파세나디 왕이 세운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할 비구니 처소 ‘라자까라마 승원’을 말한다.) 그 동쪽으로 이웃해 있는 탑은 수닷타장자의 본래 집터이다. 스라바스티 성 남쪽 5~6리 되는 곳에 기원정사가 있는데, 수닷타장자가 부처님을 위해 정사를 세운 곳이다. 옛날에는 가람이었으나 이젠 황폐해져 있다. 동문 좌우에는 각기 높이 7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며 건물은 붕괴한 채 그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다만 한 벽돌집만이 견고하게 홀로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불상이 있다.”

알렉산더 커닝햄(Sir Alexander Cunningham, 1814~1893년)의 발굴자료에는 이 불상에 ‘꼬삼바꾸띠’라고 새겨져 있으며 불상의 높이가 7피트 4인치(약 2m 25cm), 왼손은 무릎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수인이며, 가사를 입고 머리둘레에 오로라 광채가 있다. 붉은빛이 도는 사암으로 만든 마투라 불상과 같은 형태였다.

### 3) 비구니 승원 라자까라마<sup>8)</sup>

『금강반야바라밀경』<sup>9)</sup>을 배우면서, 설법장소인 기원정사 바로 맞은 편에 ‘라자까라마’(Rajakarama)라는 비구니 승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게 되었다.

파세나디 왕에게는 불심이 깊고 지혜로운 딸리 왕비가 있었고 둘 사이에는 슈리말라(승만) 공주가<sup>10)</sup> 있었다. 이 공주는 후에 『승만경』의 주인공이 된다. 불자 가족이 된 파세나디 왕은 기원정사 맞은 편에 최초의 비구니 승원인 ‘라자까라마’를 보시한다.

이 승원은 1,000명의 비구니가 생활했다고 하는데, 우물터와 건물터는 남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기원정사는 현재 성지순례가 가능하고 알렉산더 커닝햄이 남긴 발굴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해서 라자까라마 승원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그칠 따름이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 라자까

라마 승원이 발굴되고, 기원정사 미발굴 영역도 발굴되어 많은 불자의 신심을 키워주고 지속적인 보시 공덕을 심게 해주는 성지가 되기를 빌어 본다.

### 3. 기원정사와 운문사 시설 및 생활 배대

인도에서 시작된 비구니의 역사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구족계 수계 전 사미니를 교육하는 강원으로 운문사가 있다.

1,500년 전 신라 시대 때 창건한 고찰이며, 1956년 정화 이후에 사미니 강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2,000명이 넘는 비구니를 배출하여, 전법에 힘쓰며 오늘도 한국불교의 비구니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비구니를 있게 한 고타미와 수많은 비구니가 생활했던 라자카라마 승원의 모습이 많이 궁극하지만 그곳의 발굴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 대표 승원이었던 기원정사를 살펴보고 운문사의 상황과 배대하여 당시 수행환경을 도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건물 개요	
기원정사	
1. 창건 시기와 위치 :	2500년 전 북인도 코실라국 스라바스티, 입구 북동쪽 약 1km 사위성 성벽
2. 창건주 :	수닷타 정자와 제타 태자 숲 보시
3. 입주인 :	부처님과 대비구 1,250명, 사부대중
4. 출입문과 지면 :	동방, 북방 2곳, 문지가실이 있고 승원 전체 평지가람, 난간으로 경계
5. 기온 :	여름보다 뜨거운 날(현재 인도)
6. 건물 동 수 :	60개의 커다란 홀과 60개의 작은 홀
운문사	
1. 창건 시기와 위치 :	1500여 년 전 한국 청도 호거산, 신라 신흥왕 21년인 560년 해탈문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버스 정류장
2. 창건주 :	신라 시대 한 신승神僧의 창건부터 명성 회주스님까지 수차례 중창 중
3. 입주인 :	1958년 강원 설립, 소임자 스님, 교수 스님들/사미니, 비구니 재학 중
4. 출입문과 지면 :	남방 해탈문(성문에 해당), 동편 범종루, 사찰 전체 평지가람, 불이문(에불공간과 강학 및 수행공간 구분), 담장으로 경계
5. 기온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6. 건물 동 수 :	대웅전, 비로전, 죽림련동 3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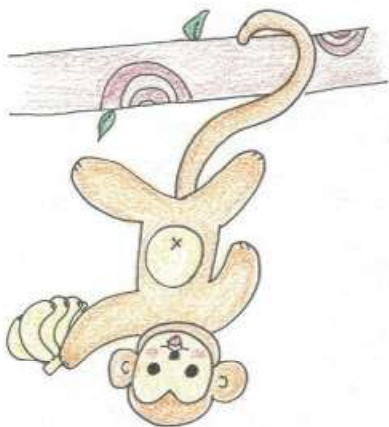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 8) 승원 Rajakarama는 파세나디 왕이 보시한 비구니 정사이며, '왕의 원림園林'이라고 해석된다.
- 9) 『금강경』은 부처님 성도 후 56세부터 77세까지 반야경을 설하였다. (출처:금강경 오가해/우비스님 번역) 법회의 시작은 1,250명 비구와 함께 걸식 후 반사를 하였으며 부좌이좌 하시고 질문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는 사부대중이 환희하고 신수봉행으로 끝난다. 사부대중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사가 포함된다. 그 면세에도 길 위에서 탁발하고 설법하시는 생활모습을 보여주신 뜻에 숙연해진다.
- 10) 말리 왕비와 파세나디 왕의 공주 슈리말라는 아유디국 우칭왕의 왕비가 되고 한역으로 승만부인이라 불린다. 말리 왕비의 전법으로 불법에 귀의한다. 『승만경』은 승만부인 자신이 부처님 앞에서 법(法)을 설하면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여래장사 상如來藏思想을 천명한 경이지만 대승보살의 10대 서원이 드러난 경전으로 유명하며 신라시대 이래로 매우 널리 유통되고 있다.

## 치문의 전도몽상

선재 / 사미니과

무심한 세월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더니 벌써 겨울철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할 때까지의 하루는 아득히 길기만 한데 지난 파트, 지난 철을 헤아리면 언제 지나갔는지 싶은 이상한 시간감각 속에서 운문사의 치문을 보내고 있다. 교수사 스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온통 낯설고 여전히 서들기가 짝이 없다. 아무래도 뒤바뀐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아서 그렇지 않나 싶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치문의 마지막 한 철을 남겨두고 그간의 전도몽상을 떠올려 보았다.



심화\_사미니과 공룡

### 고요하고 한가로운

매우 고요한 공간을 마주하면 흔히 사용되는 관용표현 중에 '절간 같다'는 말이 있다. 바깥에서는 그만큼 절이 고요한 곳으로 보인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실제 생활 공간으로 마주한 절간은 절대 고요하고 한가로운 여유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폭 짝인 치문의 입과 속에서 한가로움은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표현이다.

바쁜 가을철, 김장올려 줄 상반 스님과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출가해서 해본 울력 중에는 나무하기를 비롯하여 시멘트로 길 닦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상반 스님의 본사는 다녀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다고 하는 곳이었다. 아무리 절밥이 무섭다지만, 믿기 어려워하는 어리석은 치문의 귀에 상반 스님의 말이 살아있는 범문이 되어 꽃힌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다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물위에 떠 있는 백조의 우아함을 즐긴다. 그러나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백조의 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 출가 전 그랬던 한가하고 고요한 사찰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중생의 전도몽상이었음을 여전히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다.

### 믹스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울력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벗이 있다면 믹스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이다. 출가 전에는 스님들이 입안에 그윽한 잔향이 감도는 맑은 차를 즐기시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출가하여 행자 시절과 치문 시절을 보내면서 즐겨 마시게 된 것은 믹스커피이다. 향기 그윽한 드립커피는 어른 스님께서 가끔 공양해 주시거나 상반 스님이 나누어 주실 때 겨우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지치고 당이 떨어질 때 마시는 한 잔의 믹스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야말로 늘 곁에 두고 싶은 치문의 진정한 벗이다.

### 상반 스님은 무서운 존재

행자 시절 운문사에 대해 들었던 여러 가지 소문 중에 '운문사 화엄반은 청도 군수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옛말이 된 것 같다. 대중울력 중에 상반 스님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군수는커녕 칠없는 치문반보다 몇 배는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치문을 가르치며 울력을 하느라 답답하고 효율도 떨어져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중에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자상한 마음이 느껴질 때면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치문반과 사집반은 한 공간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 없다고도 들었지만, 사집반 때문에 치문반이 힘들다는 것도 뒤바뀐 헛된 생각이었다. 힘들어하는 치문을 대신해 사집반 스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는 것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으로 운문사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입승 스님과 부전 스님을 비롯해 튼튼이 튀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어른 스님과 상반 스님들 덕분에 치문 생활을 견딜 수 있다.

이 외에도 뒤바뀐 헛된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전도몽상에 갇혀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번뇌만 쌓아가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치문도 얼마 남지 않았다. '치문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상반 스님도 있다. 실제로 치문반 막내도 사집으로 올라가기 싫다며 떨고 있다. 아무래도 상반이 될수록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전도몽상이기를, 그리하여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새로운 치문반을 맞을 때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 행복한 사집반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33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혜진/사집과



아침 공양을 마치고 차 한잔의 여유로 예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철 황룡사에서 있었던 동련 연수회에서 들었던 강의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치유로부터 시작된다.’ 이경미(차 의과대학교) 교수님께서 이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끌어올릴 수 있듯이, 나 스스로를 친절함으로 돌본다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치유력을 주변에 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컵에 있는 물로 주위를 적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컵에 있는 물을 따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계속 부어,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내면이 가득 차면 딱히 애를 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과 같은 리듬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도 배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감정의 목록을 적어 두드러지는 감정의 주제를 찾아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마치 폭포수 아래에 선 것처럼 나를 찾아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낀 다음 그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저 감정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나를 찾아온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다 보면,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며 사는지,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상대방의 생존 여부나 실제 편지를 보낼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편지를 써 봅니다. 고통, 좌절, 원망, 분노의 감정을 종이 위에 써 내려 갑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를 동원해 표현하는 것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여 있었던 감정이 점점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수련회에서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기억하는 만큼 쓰고 모두 모아서 태우며 참회



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위의 3가지 방법을 삶에서 실천하고 함께 나누다면 자신을, 그리고 나아가 타인까지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 또한 연민과 자기 치유의 근간으로, 신체가 건강해야 수행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때 병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건강한 상태보다는 '미병未病' 상태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치유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습관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지배적인 정서와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성격까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좋은 균'에 먹이를 주는 것은 채소류와 거친 탄수화물이고, 가공식품은 집중력 저하, 뇌건강에 악화 등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2주 정도 지속하면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골에서 말농사로 생산한 농산물만을 섭취하다가, 직접 물건을 사게 되면 서부터 좋은 먹거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입산이 아닌 국산을 고집하는 것이나, 절에 다니고 수행에 관심을 가지며 채식은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어려움을 겪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다양하게 식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공양이 들어오는 대로 일미칠근一米七斤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먹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번 동련 연수회는 나와 너를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불자와 스님들과 기타 목적이 같은 이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마치 같은 길을 가는 도반처럼 빙그레 웃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눈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읽고 계신 분께 마음의 '따뜻한 차 한잔' 공양 올립니다. (웃)



삼화, 사실과 허연



나무야, 이사 가서도 잘 살아야 한다



희주 스님, 93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 함께라서 따뜻한 겨울

편집부

이렇게 신나는  
축하공연 보셨나요?  
아나바다 장터로  
어서들 오시지요.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입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봉도사 율주 덕문 스님의 특강 덕분에  
복장(伏藏)과 점안(點眼)의식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경주 황룡사에서  
치문, 사집반 스님들과 함께



겨울이 와도 싱싱한 배추밭에서  
우리네 마음도 푸르게 물듭니다.



도량 안내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올리는  
사집반 스님들의 목소리에  
겨울 현파도 주춧했습니다.



대웅전의 포삼은  
언제나 친란한 햇살과  
함께합니다.

## 삼계화택의 지구를 구하는 불자들의 실천

유정길 /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화두이다. 그야말로 삼계화택三界火宅과 같이 지금 지구는 불이 활활 타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종단은 총무원장의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고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기후위기는 현재 우리 사회와 삶의 총체적인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며, 수직적인 성장사회가 아니라 공존하는 '순환사회'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위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이 아니라 소육지족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자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중무기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전환' 담화문을 선언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이 향후 10년간의 실천기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첫 번째 전환 행동 :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 음식문화 생활의 전환

첫째,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은 사찰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을 효율화하며 사찰 등의 유휴지와 주차장에 향후 10년간 1080개의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약속이다. 사찰 내를 걸어서 가는 하마비 운동과 경내 전기차 운행,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위해 사찰의 유휴지에 나무 심기 운동, 전통 산신신앙과 산감제도를 되살려 숲과 나무를 보호하고 지키는 운동도 포함된다.

둘째,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생명의 생존권을 위해 동물권 증진 및 생

대적 방생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집임을 주지하고 이들 생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음식문화 생활의 전환'은 과도한 육식문화가 기후 식량위기의 큰 원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식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난화 물질인 메탄가스가 배출되며, 식량자원이 가축의 사료로 쓰여 빈곤국의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불살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채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불교 전통의 발우공양 문화를 이어받아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과 음식을 욕심으로 먹지 않고 약으로 생각하는 소식小食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자.

#### 두 번째 지족 행동 : 청빈한 소비 만족하는 삶, 나눔과 협동의 삶, 감사와 보은의 삶

첫째, '청빈한 소비 만족하는 삶'은 소욕지족을 추구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물질은 소박하게 그러나 정신은 풍요롭게, 작지만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성찰적이고 정의로운 소비를 해야 한다. 탄소발자국을 고려하고, 목적보다는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캠페인을 벌인다.

둘째, '나눔과 협동의 삶'은 본래 내 것은 없다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커먼즈(communs) 지향의 삶'을 삼도목 독려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커먼즈는 공동체에서의 공유자산 및 공유 활동을 의미한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람들과서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공동체가 희망이며 사유화 민간화를 막고 공유화하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사찰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셋째, '감사와 보은의 삶'은 우리가 자연의 은혜와 수많은 이웃의 노고 덕분에 살고 있음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갚는 활동이 바로 환경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의 동력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 세 번째 순환 행동 : 생태적 순환사회, 쓰레기 제로 사회, 자급과 자립의 사회

첫째,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만들어 활용하고, 불자 스스로 미래세대에 밑거름이 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둘째, '쓰레기 제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지금 너무도 많은 물건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재활용하며 다시 쓰고, 비귀 쓰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농촌, 산촌, 어촌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정정국도 만들기 운동을 펼치도록 한다.

셋째, '자급과 자립의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친환경 녹색사회의 근본은 농업과 농촌에 있다. 농지를 확보하고 농민을 소중히 하며 유기농 생산과 도농직 거래를 장려하고, 귀농 귀촌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식량 자립과 서로 협동하는 마을공동체가 녹색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 넷째로는 참여 행동 : 협력 연대하는 참여, 함께 배우는 참여, 변화를 만드는 참여

첫째, '협력 연대하는 참여'로 전국 25개 교구본사에 기후환경실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분교 환경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단체들과 협력 연대하고 지원하며 지역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함께 배우는 참여'를 통해 교구본사와 말사의 주지 스님, 7직 스님 및 신도들이 환경법회를 열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1-2회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위한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여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다.

셋째, '변화를 만드는 참여'로 모든 불자들이 환경실천을 약속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단체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 녹색 사찰운동의 실천과 환경위원회의 설치

한편 종단이나 교구본사 차원의 특별활동을 위해서는 실무자 개인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개별 사찰에서 사회적 실천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단체가 없으면 지속적인 실천을 하기가 어려우며, 교구장 스님의 강력한 의지와 교시가 없으면 실질적 활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5개 교구본사 중에 올해 가능한 교구본사별로 7개 정도의 기후환경실천위원회를 설립하고, 신행단체

들에게도 환경조직을 만들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본 말사 주주 및 7직 스님과 사무장 및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종단 산하의 지원기구나 불교환경연대 같은 전문기구를 통해 교육, 캠페인, 조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필자가 속한 불교환경연대는 전국비구니회와 녹색사찰운동을 펼치고 있다. 앞의 지침들과 중복되는 실천사항 외에도, 두 가지의 집단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사찰이 1년에 2회의 환경법회와 4~6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신도들이 환경실천조직을 만들어 사찰의 환경문제를 전담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나아가 녹색사찰운동 전국본부에서 1년에 2번 진행되는 환경캠페인에 참여하여, 연말에 실천내용의 사례발표도 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서로 독려하며 기후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

앞에서 2033년까지 약 10년간의 활동을 계획하며 살펴본 방안 중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당장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지족 운동과 빙그릇 운동, 한 끼 채식운동, 농·산·어촌 쓰레기 줍기 및 나무 심기 운동 등이다. 새해를 맞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이들을 실천에 옮기며 청정국토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면 어떨까?

혹시 너무 사소한 실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일즉다 다즉일—即多 多即—이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변화는 전체를 흔드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자, 하나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실천에도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조계종 백년대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토회 예교부터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한국JIS 카불지원팀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협력활동을 했으며, 평화재단의 기획실장,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다. 생태, 녹색, 평화, 개발협력, 진화, 개혁 등을 화두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태사회와 녹색불교』를 집필했고 『불교의 생태적 지혜와 환경』, 『녹색당과 녹색정치』, 『지구별 생태사상가』 등의 공저가 있고, 최근에 출간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번역 감수했다.

## 향 째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 째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천진 / 사교과



시교반 영원

“행자님은 왜 출가했어요?”

갑작스러운 은사 스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였을까?

치문 때, 은사 스님께서도 또 물으셨다. “천진 스님은 출가 목적이 뭐예요?”

출가 목적이 있었던가? 어쩌면 출가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저 두렵고 불안했다. 그 무렵에는 유독 큰 사건 사고가 많았다. 잠을 자면 실체도 없는 것으로부터 쫓기는 꿈에 시달렸다. 이런 불안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주위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불안한 세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부처가 되는 것' 이라 생각하여 망실임 끝에 지금의 은사 스님을 찾아가다. 스님께서서는 흔쾌히 길을 내어주셨고, 나는 머리를 깎을 수 있었다. 이제야 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매일 머리를 만지며 허허허 웃는 나를 보며 은사 스님께서서는 '허행자' 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행자 시절도 치문, 사집 시절도 그저 즐거운 나날이었다. 나의 건고한 신심을 믿었다.

출가 전에는 오로지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감동하고, 절에 가는 일이 즐겁고 스님들의 수행이 궁금했다. 그런데 정작 머리를 깎고 매일 조석으로 예불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들이 덤덤해지다 못해 가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새 신심이 사라진 걸까? 처음부터 신심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고민하는 나에게 도반 스님이 말했다.

“출가 전과 지금의 우리는 신심의 방향이 달라요. 예전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중생으로 놓고 다른 대상을 찾아 부처라 이름하며 자신의 안위와 복을 구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자신이 부처라는 것, 이 현상 세계가 진여법신의 현현이고 표현이라는 것, 이 찰나 생멸하는 무상한 현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일체의 차별상과 분별상을 여윈 불생분멸의 진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자 하잖



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나를 살리고 일체 생명을 살리는 대승 보살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교반이 되어 소임을 살면서 여름 한 천 동안 예불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느 날, 가사 장삼을 수하고 빔당으로 가는 도반 스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솟았다. 이유 모를 설움이 밀려왔다. 내 자리도 저긴데…

소임이 끝나고 참석한 첫 예불에서 나는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 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것은 소리를 모아 부처님을 예경하는 목소리였다. 예불을 마치고 안행을 지어 돌아오는 길에 그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매일 그 속에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일들이, 떠나보고서야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 버리지만 콩나물은 자라 있듯, 우리도 매일 예불을 올리고 수업을 듣고, 독송을 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숨되어 스님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일까?

『대승기신론』에는 ‘훈습의자熏習義者 여세간의복하世間衣服에 실무어향實無於香이로대 약인이향若人以香으로 이훈습고而熏習故로 즉유향기則有香氣인달하여’ 라는 구절이 나온다. 훈습이라는 것은 옷에는 실제로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기가 배게 한다면 향기가 있다는 뜻이다.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 쌍서품雙敍品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때, 부처님이 길에 떨어져 있는 목은 종이를 보시고, 한 비구를 시켜 그것을 줌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비구는 말했다.

“이것은 향을 찢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가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시고, 줌게 하여 그것이 어떤 새끼줄이냐고 물으셨다. 비구는 다시 말했다.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것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因緣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이를 가까이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 가고, 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업식의 길에서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를 했고 경전을 읽는다. 그저 속없이 허허히 웃을 줄만 알던 행자가 어느새, 어설플 햇중의 모양이라도 낼 수 있는 건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의 힘이요, 올바르게 이끌고자 애쓰시는 어른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다. 부처님과 주변 분들의 은혜를 갖는 길은 올바르게 수행해서 불법의 해명을 잇는 일일 것이다.

오늘 화엄경 사경집을 받았다. 한 자 한 자 정성을 새기며 발원을 세워 본다. ॐ

## 부처님 닮아가는 길

무공 / 대학교



나에게 있어서 출가한 공덕의 가피는 많고도 많지만, 우선 운문사에 온 것을 꼽을 수 있다. 운문사에 있는 동안 장애를 잘 넘기며 화엄반까지 올라온 것과 졸업여행으로 도반 스님들과 인도를 간 것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여파로 인도 졸업여행을 가내 마네 하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회주스님이 이하 어른 스님, 대중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용원 덕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출발 전부터 3일 동안 올렸던 신중 기도에 신심이 충만해져서 한 번 울고, 어른 스님들께서 보내 주신 용원의 메시지에 울고, 폭발적인 지원과 사랑에 또 한 번(물론 마음으로) 울었다.

어른 스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에 에너지를 잘 충전하여 순례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 도착하고 보니 인도의 날씨는 비교적 쾌적했지만 가끔 심술이라도 난 듯이 비가 오곤 했다. 하지만 결국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비가 와서,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두가 신심과 환희심으로 무장하였고 울고 웃으며 크게 아픈 사람 없이 만행을 즐겼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도의 생활수준을 보고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도 있고, 환경운동가는 인도의 환경이 잘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길에 수없이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보며 앞으로

의 환경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는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번 생에 열 번은 가야 할 곳' 이 될 수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이 될 수도 있다.

인도의 호텔과 잘 보존된 건물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뒷면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씬 없이 구걸하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다. 장애와 병고가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직면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거리에 떠도는 수많은 개들은 무기력했다. 몸집은 왜소하고 눈은 충기를 잃었으며 여기저기 두드러기가 번져 가려워하며 괴로움에 짓눌려 먹이를 찾을 의지조차 상실한 채 어슬렁거리는 걸음에는 영혼조차 없어 보였다. 인도의 소와 개들은 어떤 입을 짓고 그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마주치면서 대체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에 빠져들곤 했지만, 부처님께서 왜 이런 척박한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생각하며 부처님이 되어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졌다. 구걸하는 아이들을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귀찮은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도 확고해졌다. 더러움과 깨끗함, 분별 속에서는 마음만 무기워질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여러 가지 경계에서 조금씩 분별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태이남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화두가 되어, 나는 하루에 5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사유에 빠지게 되었다. '이 여행은 과거의 허물어진 유적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흔적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이런 다짐이 더욱 굳어지면서 인도는 곳곳마다 마음의 수행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와 네팔의 불교 8대 성지인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기원정사, 바이살리, 상카시아를 돌면서 “불생 가비라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입멸 쿠시라”를 흥얼거렸다. 철에 한 번씩 있었던 범공양의 기억이 인도 여행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덕분에 생소한 인도 도시의 이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카필라<sup>1)</sup>, 성도하신 곳은 마갈타<sup>2)</sup>, 설법하신 곳은 바라나시<sup>3)</sup>, 열반에 드신 곳은 쿠시나가라<sup>4)</sup>.

순간순간 깨어있고 늘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둘러본 성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보드가야였다. 이틀 동안 부처님의 성도지인 마하보디 사원에서 가사 공양 의식도 하고 대담에 참배하며 금강 보좌와 보리수에서 절하면서 부처님을 계속 떠올렸다.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리면서 늘 가사를 잃지 않는 수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곳곳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오체투지하는 모습과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경하는 모습에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 나올 수 있었다.

부처님의 최초 설법지인 녹야원에서는 도반 스님들과 기도를 하는 동안 견학을 온 인도 학생들 백여 명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호기심 넘치는 눈빛에 절로 신이 나기도 했다. 우리의 순례 모습은 상카시아 인도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기사에 우리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실리니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 20명, 상카시아에서 기도하다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 20명 비구니 스님들이 상카시아에 도착했다. 인솔자는 스님들을 모시고 불교 성지순례를 위하여 뉴델리부터 시작해서 바라나시, 부다가야, 라즈기르, 나란다,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카필라성, 스라바스티를 순례하고 상카시아에 도착했다. 여기서 스님들은 마투라, 아그라를 돌아본 후 다시 뉴델리에 도착할 것이다. 스님들은 한국의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으로써, 불교를 공부한 뒤에 졸업여행으로 인도 성지순례를 왔다. 여기서 돌아간 뒤에 졸업 후 승복에서 갈색 띠를 띠는 것이다.

금강경 설법지인 기원정사는 흥수로 인해 못 감 뻔했으나 화엄만의 원력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다. 기원정사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비를 맞으며 막대기같이 마른 몸으로 풀을 베며 묵묵히 도랑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의 모습은 부처님 같아 보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인 것일까? 인도는 척박했지만, 둥글게 굴러가는 공처럼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었다. 덕분에 나는 인도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음을 느꼈고, 희망을 보고 왔다. 인도에 다녀온 뒤 내 마음 상태는 서릿발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이고, 오감은 열리고 정신은 빛나며 마음은 차분해졌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인도 여행은 내 안의 수많은 모습을 마주하게 해줬다. 비우고 또 비워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부처님을 닮아 가기를, 그리고 더 맑은 향기를 지닌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깊은 어윤과 긴 감동으로 졸업여행을 환희롭게 원만 회향하였다. ☺



- 1) 마야부인이 친정으로 가는 도중 카필라성 밖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였다.
- 2) 마가디국, 부다가야라는 도시 부근에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이곳의 강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 3) 바라나시(베나레스) 근교의 녹야원에서 옛 도반이었던 교진여 등 다섯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설하셨다.
- 4) 쿠시라성의 사라방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날 01 2020년 10월 20일 09:00 | 날 02 04월 07일 09:00 | 날 03 04월 20일 09:00 | 날 04 05월 20일 09:00 | 날 05 06월 20일 09:00 | 날 06 07월 20일 09:00 | 날 07 08월 20일 09:00 | 날 08 09월 20일 09:00

### 역사문화관 기공식

법일 / 사집과

운문사의 역사문화관에 대해 처음 들어본 것은 올해 여름철이었다. 그 이후로 겨울철이 되어 기공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기공식 때 카메라 소임을 맡게 되었고, 덕분에 운문사의 역사문화관 기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공식이 있던 날,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에 마련된 무대로 향했다. 나는 영상 카메라인 고프로를 들고 영상을 찍기로 하였고, 문화부장 스님과 함께 사전에 카메라 각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이 열리는 곳은 주차장으로 쓰이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걸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수업을 마치고 와 보니 짧은 시간 동안에 도감 스님과 처사님들이 무대와 객석, 시삽단을 만들어 놓으셨다. 기공을 앞두고 첫 삼을 뜨는 상징으로서 흙을 모양내어 만든 시삽단은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했고, 나는 운문사 역사문화관의 첫 시작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굳은 책임감에 고프로를 들고 열심히 다녔다.

학인 스님들이 수업에 들어간 동안 불사 총도감 운산 스님(전 주지 스님)과 사리암 감원 스님께서는 천수 다리니로 시작해 역사문화관 무사 완공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려 주셨다. 이어서 교무 스님의 능숙한 사회와 함께 기공식이 시작되었다. 회주 스님 이하 운문사 어른 스님들께서 오셨고, 외부에서는 동화사 회주 스님과 운문사 신도회장님, 국회의원 분들, 청도 군수님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운문사는 이미 유서 깊은 천년고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운문사는 신라의 원광 국사가 화랑 정신의 기본인 다섯 가지 수신계修身戒인 세속오계를 제정하여 전수한 곳이자,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이다. 운문사는 총 1,250건 이상의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장 유물을 보존 및 관리,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회주 스님께서

는 현대인을 위한 불교문화 홍보 및 정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할 곳이 속히 마련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오셨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운문사 승가대학은 그 자취가 반백년이 넘고 졸업생이 2천여 명에 달하며 승가대학으로서 명실상부한 최대 비구니 도량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 염원에 힘입어, 처음 종합정비 계획을 세웠던 2015년부터 어언 7년이 지나 다행히도 여러 운문사 동문 스님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신도님들이 모금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운문사는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한국 최대의 비구니 도량이라는 특수성을 갖춘 곳인 만큼 그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군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갔다.

실제로 운문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 보물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각을 포함한 도량 내의 여러 건물에 보관만 되어 있고 전시하지 못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학인들까지도 현재 운문사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치문반이었을 때 있었던 확장 스님의 특강을 통해서야 운문사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 보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축사가 모두 끝나고 여러 어른 스님들과 내빈들께서 모두 시삽을 하며 기공식이 마무리 되었고,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의 첫걸음을 떼었다. 축하의 폭죽이 터지며 끝이 났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방학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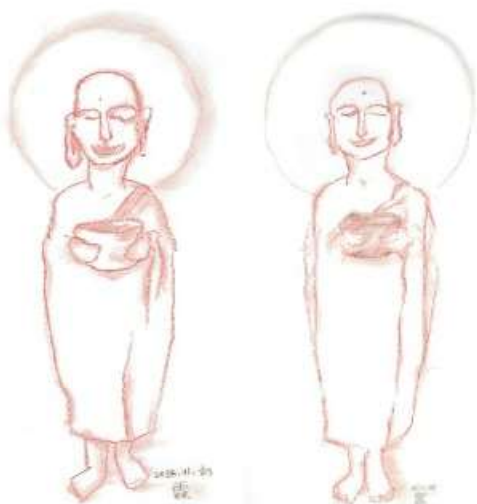
어름칠 방학 중 운문사에 남아 잠시 노전 소임을 살 때였다. 대웅보전 저녁예불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거사님이 대웅보전 문을 잠그고 있는 우리를 보고, 다른 큰 사찰은 문을 다 개방해 놓는데 왜 운문사는 문을 매번 잠그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다. 그때 병법 스님은 운문사에는 보물이 많아, 도난사건이 있었기도 하고, 도난 예방을 목적으로 문을 잠근다는 말을 하셨었다. 역사문화관이 세워진다면 보물을 도난당할 걱정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테니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웅보전도 언젠가는 24시간 개방이 되어서 여러 신도님들이 편안하게 전각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운문사 역사문화관이 안전히, 속히 완공될 수 있기를 이 글을 통해서 발원해 본다. ☸



## 회광반조 回光返照

수정 / 대교과

졸업을 앞두고, 결코 짧지 않았던 운문사에서의 시간들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되돌아 봅니다. 저에게는 '나가는 업'이 있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 기회가 올 때마다 외국으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일을 하고, 폭넓은 정신의 여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때, 저는 일시적인 기쁨과 환희로움을 만끽했지만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끝나면 곧 다시 우울해졌고, 내면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계속 저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화, 시교과 친화

행자 생활 도중 저는 큰 경계에 부딪혀, 인도의 명사가 라마나 마하리쉬가 수행했던 남인도의 아쉬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두 달여 간 지냈는데 거기서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곳의 수행자들은 제가 행사 때 봤던 수좌 스님들과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 반면 내면의 불안에서 실로 자유로워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돌아와 새 마음 새 뜻으로 운문사에 들어왔습니다. 행사 생활부터 시작된 강원의 절제되고 각이 잡힌 대중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을 애써 수행으로 돌리지 않으면 감옥과도 다름없었어요. 두려움과 고독, 슬픔과 분노, 미움과 수치심 등으로 괴로웠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저는 또 나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겠지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틈을 타, 지난 여름방학 때 남인도에 있는 오로빌에 갔어요. 오로빌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흥미롭고 이상주의적인 일종의 생태·대안·영성 실험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을 즐겼어요. 마음이 착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함께 요가와 명상을 하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 '계'를 물 수지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음이자 더 높고 귀한 것을 추구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밤새도록 이야기할 때, 경치가 좋은 곳에 가고 좋아 보이는 물건을 살 때, 제 모습은 출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절제된 단단한 습관과 규칙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구나. 다시 세속에 있다 보니 즐거움보다는 소욕지족을 추구하고 계를 지키며 출가 수행자로 살고 싶어 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출가 수행자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추해지든구나, 한평생 승려로 살다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도업을 이루고자 했던 초발심의 마음가짐을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시선이 너무 밖으로만 향해 있었다는 것과, 소중한 것은 이미 내 안에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은사 스님께 죄송했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 보니 계를 받고 옳르게 지켜 나아가는 맑고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제가 그토록 그리고자 했던 화상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운문사에서의 생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살다 온 업을 거스르고자 반복하던 일상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업풍에도 제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준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불법문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신 신장님과 불보살님께 진실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후배 스님들,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신심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서 가라."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계제일持戒第一로 알려진 우바리 존자의 계송입니다. 이 계송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를 지키고 퇴굴심을 일으키지 않기를, 밖으로 향하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홀로 있음에 충만한 수행자 되기를 발원합니다. 4년동안 고생한 나에게,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한 도반 스님들에게 자애와 연민을 보냅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_0\_ ॐ

## 공, 공, 공

마노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마노입니다. 저의 차례법문 주제는 '공, 공, 공'입니다.

축구공의 '공', 이바지할 '공供', 불교의 빌 '공'입니다.

대중 스님들께서는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해 아십니까? 현재 안면골절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이며, 항상 노력하는 겸손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손웅정 씨의 인터뷰에 감명을 받으시고 영상을 찾아보시더니, 저에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같이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멋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손웅정 씨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손웅정 씨처럼 저를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텐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은사 스님의 말씀을 듣고 손웅정 씨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손웅정 씨는 어렸

올 적부터 지금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과 청소를 하며, 공사관에 가 일을 할 때도 일과인 청소와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축구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 실수할 때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놀라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겠다는 건가 싶어서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웅정 씨의 훈련의 이면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를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시산대사의 신시 '답설야증거踏雪野中去'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걸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글귀를 손웅정 씨는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평일과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직접 축구를 가르쳤고,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며 모든 훈련을 함께 하는 등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100포 이상의 소금을 뿌려 겨울엔 눈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여름엔 건조하지 않아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했다고 합니다. 항상 아들에게 축구선수로서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한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대나무에 빗대어 강조했습니다.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를 내린 이후에는 하루에 20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잘 잡혀 있으면 다음 단계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적용할 수 있고, 위기가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기가 저에게는 출가 후 4년 동안의 운문사 강원 생활이었습니다. 새벽에 불을 가서 쯤더라도 법당에서 쯤고, 아직 달과 별이 떠 있는 아침에 발우를 펴고, 또 래처럼 놀고 싶지만 큰 방에서 경전을 독송합니다. 이렇게 선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는 운문사의 생활이 저에게는 극기훈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 담은 기본기는 평생의 수행 생활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사 스님께서 '수행의 기본'은 '시쫄든 무서운 줄 알아 아껴 쓰고,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여 반드시 회향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물을 절약하느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꽃에 물을 주고, 여름엔 수확하고 남은 못난이 감자 이삭을 주우려 호미와 포대를 챙겨 마을에 내려갑니다. 낫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며, 유통기한



이 하루 이를 남아 70% 이상 새일하는 것만 사서 드립니다. 종종 좋아하시는 산딸기 앞에서 한참 고민하시다 결국 발걸음 돌리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휴지는 3칸만 쓰게 하십니다. 어느날 휴지 많이 쓴 것을 들킬까 봐 변기에 비렸는데, 막혀서 엄청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은 항상 담당하시며 그렇게 아끼신 돈으로는 불사에 동참하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십니다. 처음엔 속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은사 스님의 깊은 속뜻을 알고 나니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의 절약과 보시, 회향의 삶을 통해 두 번째 공인, 이바지할 공력을 몸소 배웁니다.

사집반 수업시간 때 '줄탁동시(嚼啄同時)'에 대해 배웠는데, 손웅정 씨 또한 자신과 아들을 줄탁동시에 비유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린 부리로 껍데기의 안쪽을 찌다가 힘에 부치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어미 닭이 바깥에서 도와 껍데기를 같이 찌어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이 깨지는 데는 서로 돕지 않으면 하나의 세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껍데기를 찌기 시작한 것이라면, 저에게는 출가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첫 부리질이었습니다. 아직 알을 깨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은사 스님을 비롯한 운문사 어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 대중 스님들이 알을 쪼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나'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세 번째 공인인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차례법문을 준비하면서 손웅정 씨의 에세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구매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삼장원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불교계의 손흥민이 되고 싶은 화엄반 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화\_ 대학교 마노

## 세한삼우 歲寒三友

원경下 / 사교과

맹렬한 추위 속에서 피어날 수밖엔 없고  
구부러지려고 해도 구부러질 수가 없고  
물들려 해도 물들 수가 없네

바르고 곧은 대쪽같은 대원  
푸른 잎 항상 변함없는 대원으로

마침내 하얀 얼음 사이로 새빨간 꽃을 피워  
온 시방법계에 그 향이 두루하여지네

##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태감 / 운문사한문물전대학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저자 비혼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펴낸 책이다. 2년 전 스웨덴에서 출간되어 독자들의 열광 속에 그해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30만 부가 판매되었고, 세계 25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저자는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나이 스물여섯에 임원으로 지명될 정도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다.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에서 승려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에 귀의해 '나티코', 즉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범명을 받은 파란 눈의 수행자. 승려로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수행으로 삼독을 닦아, 엄격한 계율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된 그는 마

흔여섯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 환속했다. 17년 간의 수행을 뒤로하고 스웨덴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널리 전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고국에서 널리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책은 그가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고 있다.

'숲속의 현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달은 것들'이라는 홍보글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왜? 어떻게?'라는 두 질문이 번갈아 머릿속을 맴돌았고, 곧 저자의 고요하고 강직한 에너지에 감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삶에 대한 정제된 생각을 담은 그의 말들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깊은 곳을 흔든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지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세 번만 되된다면 마음속의근심은 여름 날 아침 풀밭에  
엷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주문' 을 읽으면서 가슴속 깊은 곳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생각만 뒤집으면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처럼 느껴졌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심장이 쿵  
쿵거리릴 만큼 짜릿한 회일이 느껴졌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내  
가 옳다,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라는 나만의 고집으로 말과 행을 했다는 것을 돌이  
켜서 알게 되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막상 필요할 때는  
빨리 떠오르지 않기 마련이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라  
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알아차림을 무수히 반복하며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는 동시  
에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짝트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솟아나고 내면을 보는 힘  
이 생기면서, 그제야 수행의 기초인 알아차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습을 거친 뒤에야 깊  
어진 집중력으로 통찰력이 생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많은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  
는 것이 지혜와 행복의 시작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는 비로  
소 생겨난다.

나티코는 승려로서 오랜 수행을 했지만, 자신을 깨우  
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한  
성품의 그는 수행을 오래 한 자신조차 끝없이 삶의 폭풍  
우에 흔들려왔음을 담담하게 고백한다.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은 독자에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가온다. '망설임  
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  
난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내 가지 거룩한 마음  
가짐을 전하며 담담하게 생을 마감한 진정한 수행자다.



트마스 산체스, 『숲』

부처님께서는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설하시며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다. 나 역시 한 거룩한 수행자의 일대기를 기점으로, 내가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을 부단히 점검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 지구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

오늘 이 지구를 공유하는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공동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는 즉시 이 세상을 바꾸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며,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마법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된다. 『원각경』에는 ‘한 세계가 청정하면 여러 세계가 청정해지고, 온 법계가 두루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모든 것은 이 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계는 불국토로 장엄될 것이다.



공동체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다양한 용도의 기물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특히 모두가 같은 시간표를 따라 의식주를 함께하며 사는 집집의 공용물품은 어딜 가나 엇비슷하다. 그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은, 공동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러한 물건의 다수가 지속 가능한 삶과는 반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단연 돋보이는 소재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다. 울퉁불퉁한 돌 수과과 타일을 청소하는 솔과 빗자루도, 풀을 뽑을 때 쓰는 의자도, 세숫대야와 바가지도 전부 플라스틱이다. 음식을 담거나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 때 여전히 비닐봉지만큼 편리한 것도 없으며, 식발염의한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정의하는 승복조차 대부분 합성 섬유가 섞인 천으로 만들어진다. 실로 우리의 의식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키워드다.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자원을 줄이자는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 용어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작년 SNS상에서 전개된 대규모 소비자 운동에 대한 답변으로 대기업이 일회용 빨대나 비닐 라벨이 붙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멋진 성과다.

이에 우리의 의식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수행을 위해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거리를 둔 이들은 환경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는 분명 모든 수행자가 직면해야 할 화두다. 인간의 뇌는 눈앞의 가



시적인 위협에 비해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다. 절집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담장 너머 먼 나라의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출가하여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데 주력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가 쉽다. 자잘한 불편은 우선 적응하고 볼 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내적인 수행의 문제로 돌리고자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곳만큼 세상의 온갖 '문제'를 사유하기에 안성맞춤인 곳도 없다. 출가자로서 보시를 받고 수행으로써 그것을 회향하고자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한데 엉켜 있던 고마움, 의무감, 막연한 부채의식 등이 서서히 정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출가자의 삶은 애초에 돌고 도는 인과(因果)와 증여의 순환 속에서 '나'라고 고집할 존재란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살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존재가 인간답게 거듭나는 순간은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수많은 것들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묻기 시작할 때라고 한다. 신선한 공기과 햇살, 첫눈과 봄비, 도반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이다. 어쩌면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이리도 단순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적절히 대처하기'(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너무 늦었던 늦지 않았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습관처럼 해 오던 일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고, 부단히 스스로를 독려하며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불이그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환경문제에서 희망과 낙관을 논한다는 것은 수행의 차원에서 지극히 실용적인 자세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지구를 공유하는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공동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는 즉시 이 세상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며,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마법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된다. 「원각경」에는 '한 세계가 청정하면 여러 세계가 청정해지고, 온 법계가 두루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모든 것은 이 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동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계는 불국토로 장엄될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수많은 것들이 대지와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구름을 이루고 빗물에 섞임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순환의 일부임을 매 순간 자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

## 운문 소식



▲ 제73차 동원 전국지도자연수회



▲ 겨울철 범공양



▲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 지바도량집법 기도



▲ 성도재입 철야정진

- 11월 8일 비로전에서 동안길 경제 재사가 있었습니다. 청풍료에서 겨울철 개강공사 및 죽비전달이 있었습니다.
- 11월 9일 엄불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 11월 12일 대웅전에서 삼천포 관음사 현오 노스님 3제가 있었습니다.
- 11월 12일 경주 황룡사에서 제73차 동원 전국지도자연수회가 있었습니다. -13일 총 24명의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14일 선열당에서 최진석 교수님의 외부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6일 종각 앞 주차장에서 느티나무 이수석이 있었습니다.
- 11월 27일 청풍료에서 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선열당 앞에서 아나바다 장터가 있었습니다.
- 11월 30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컷 자자가 있었습니다.
- 12월 2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범사 스님; 화엄반 원경, 현저, 마노 스님), 전향각에서 화엄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 12월 3일 대웅전에서 운산 불사 총도감 스님을 단주로 포상이 있었습니다. 한문불전대학원 및 화엄반 졸업사건 촬영이 있었습니다.
- 1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된 교육원장 취임식에 전평 강주 스님을 비롯하여 교수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12월 8일 금당에서 최주 스님의 93회 생신연이 있었습니다. 동문회정단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12월 11일 경주월지에서 대자원 어린이들과 함께한 화엄반 졸업법회가 있었습니다.
- 12월 12일 청풍료에서 통도사 울주 덕문 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18일 오백전에서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이 있었습니다.
- 12월 20일 ~23일 동지 휴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2일 대웅전에서 새벽 동지 관쪽 마지가 있었습니다.
- 12월 24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중간죽비 전달이 있었습니다.
- 12월 25일 ~27일 비로전에서 사집만 스님들의 자비도량참법 3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 12월 27일 화엄반의 졸업회향 상차림이 있었습니다.
- 12월 29일 청풍료와 금당에서 성도제일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12월 30일 대웅전에서 성도제일 팔상성도 예불과 새벽 관쪽 마지가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율논이가 있었습니다. 비로전에서 철야기도 정진이 있었습니다. 종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었습니다.
- 1월 1일 대웅전에서 새해 떡국 마지, 향수해례, 동알 및 대중 새해 인사가 있었습니다.
- 1월 6일 대웅전에서 제7회 잔강식, 제11회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식, 제59회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잔강식에서는 최주 스님께서 현건, 정운, 송운, 현서, 성법, 동우, 동호 스님께 잔강을 하셨습니다.
- 1월 11일 신입생 면접이 있었습니다.
- 1월 12일 청풍료에서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1월 13일 동기방학일입니다. 방학 기간은 47일입니다.

## 도와주신 분

- 이정숙 • 노선영 • 최희영 • 선정화 • 노기용 • 정해욱 • 박형수 • 신현실  
• 조서영 • 이창희 • 조정일(대인경) • 김현주 • 김춘수 • 신영근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한문』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조왕불공

향적주중상출납 香積廚中常出納	향기로운 부엌에서 항상 출납을 주재하시고
호지불법역죄마 護持佛法亦摧魔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마장을 꺾으시며
인간유원내성축 人間有願來誠祝	인간의 소원이 있어 정성을 다해 축원하면
제병소재강복다 除病消災降福多	병을 없애고 재앙을 소멸해 복을 내려 주시네

- 조왕청 中 - ㉔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지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미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제도로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집대상** 2023년 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사미니과 〇〇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 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2023년 1월 1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2023년 1월 1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 특전사항  
· 일본 하나조노대학·대학원  
·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병원비지원·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주지 진성·울주 일진·학장 운산

**모집대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3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 가능

**모집인원** 〇〇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준비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23년 2월 28일(음력 2월 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 특전사항  
· 일본 하나조노대학·대학원  
·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 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의사가  
4) 해외 연수비 지원  
5)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 원장 명성·주지 진성·울주 일진

※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

※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총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기간】겨울호·통권 제162호·2023년 1월 9일 발행·등록 1999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인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대경 / 편집위원·대경, 재선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재준 / 삽화·미노, 진화, 영현, 권경자, 혜건, 공림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